

통일 국호 'COREA'를 가정한 국가도메인(ccTLD) 제안

홍성환⁰, 심재환, 최진영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rubato@korea.ac.kr, {jhsim, choi}@formal.korea.ac.kr

A Proposal of ccTLD Based on 'Corea', the Name of Our Country United

Seong-Hwan Hong⁰, Jae-Hwan Sim, Jin-Young Choi

Graduate School of Computer & Information Technology, Korea University

요 약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인터넷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 분단상태의 남북한이 국가 도메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제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통일 국가도메인에 대한 기존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현 영문 국호인 'Korea'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다. 본자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영문 국호로 'Corea'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한 국호 영문표기 변경 논의가 남북 학술대회와 국회 결의안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남북한 국호의 영문표기 변경 논의와 연계하여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국가 도메인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유사국가들의 국가도메인(ccTLD) 등록 사례를 통해 통일 국가도메인의 등록 가능성을 탐색한 후 통일 국가도메인명으로서 '.uc'(United Corea)를 최종 제안하였다.

1. 서 론

2000년대 들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을 비롯한 IT분야에서도 정부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인터넷 관련 사업체들은 북한에 도메인 등록기술이나 서버설정기술 등의 지원을 제안해 왔으며, 2005년 '남북교류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신고(종전에는 사전승인제)하도록 하여 남북 민간교류에 있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북한의 열악한 통신인프라 현황, 폐쇄적 체제, 이른바 불량국가에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 1996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정'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IT산업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실적으로는 남북한의 정보통신과 IT분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통일 후의 통합된 남북 정보화 정책을 미리 세워두어야 하며, 북한의 정보화 동향 파악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간의 인터넷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 및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통일 국가의 도메인을 정하는 일은 국호 확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남북한의 정치적, 실제적 통합이 요원한 상황에서 통

일 국호를 논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남북한 통일 국가도메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국가도메인을 통합한다는 상징성과 더불어 통일 이후 행해질 정보통신망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함께 관심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남북한에서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국호 영문표기 변경과 병행하여 미실현 통일국가의 도메인을 우선 제정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통일이후 정보통신망의 구축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남북 학술대회 등을 통해 남북한 국호의 공동 영문표기 변경 논의를 진행해 온 것과 연계하여 통일 국가 도메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하에서는 남북한의 국가도메인 현황을 먼저 개괄하고 최근까지 논의되어온 통일 국가 도메인에 대한 제안들을 우리나라 국호 영문표기의 변경 주장들과 연계하여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통일 한국의 도메인명을 제안하였다. 한편, 통일 국가도메인의 등록허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참고사례로서 해 정식 국가가 아닌 상태로 국가도메인을 등록한 팔레스타인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의 도메인 등록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사례는 '분단시대'의 남북한이 협력하여 '통일 이전' 통일 국가도메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2. 국가 도메인 관리구조와 우리나라의 국가도메인

2.1 도메인 명의 관리 구조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명은 "." 또는 루트(Root)라 불리는 도메인네임 이하에 나무를 거꾸로 위치시킨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루트도메인 아래의 단계를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 도메인(TLD, Top Level Domain)이라고 부르며, 일반적 최상위 도메인인 gTLD와 국가 최상위 도메인인 ccTLD가 있다. 차상위 단계를 2단계 도메인(SLD, Second Level Domain)이라 부르며 이것은 기관의 성격을 나타낸다. 3단계에서는 aaa, bbb 등 도메인 신청자가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최상위 도메인네임(TLD : Top Level Domain)은 gTLD, ccTLD 등이 존재하며 각각 일정한 관례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된다.[1]

루트도메인명의 단계별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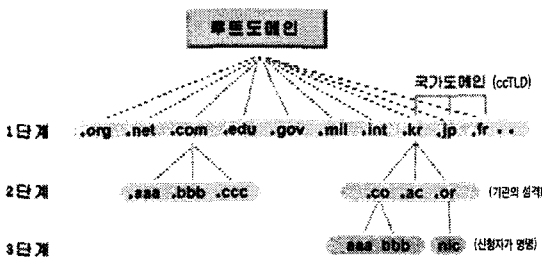


그림 1. 도메인네임 단계별 구조도

- 일반 최상위 도메인 :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com, net, org, edu, gov, mil, int 7개의 도메인 네임으로 1985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2001년부터 새로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인 name, biz, info, pro, aero, coop, museum이 ICANN을 통해 생성을 승인 받아 사용되고 있다.
- 국가 최상위 도메인 :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인터넷의 국제화에 따라 네임 공간을 국가 지역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허용되어 지역별 최상위 도메인은 ISO 3166의 두 자리 국가코드와 United Nations Terminology Bulletin Country Names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

2.2 우리나라의 국가도메인

각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의 등록처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 적을 둔 기관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도메인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는지는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1999년 ICANN에 흡수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해 왔다. 당시 IANA는 각 국가의 도메인 관리를 해당 국가내의 신뢰 있는 사람(혹은 기관)에 위임했고, 남한의 경우는 1986년에 한국과학기술원 전길남 교수가 위임받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에서 .kr도메인의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3. 북한의 국가 도메인과 인터넷 이용 현황

3.1 북한의 국가 도메인

북한은 국가별 인터넷 주소를 관장하는 IANA로부터 'kp' 라는 국가도메인을 부여받았으나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북한 스스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인터넷정보센터(APNIC)에서 등록한 것이다.[3]

그리고 북한의 국가 도메인이 .kp인 것은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각 국가의 코드표를 규정하고 있는 ISO 3166-1 목록에 북한의 코드가 kp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IANA는 각 국가에 국가 도메인을 부여하면서 자신이 정하지 않고 기존에 ISO에서 정한 코드를 가져다 사용하였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에 결부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kp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의 신뢰할만한 기관이 IANA에 국가 도메인의 위임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IANA의 상위기구인 ICANN이 미국이 주도권 하에 있어, '인터넷 콘텐츠 통제' 등의 문제와 더불어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북한의 대외 인터넷 개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북한의 국가최상위 도메인(ccLTD) '.kp' 를 이용한 웹 사이트들인 '과학기술전시관' (www.stic.ac.kp)과 '의학 과학정보센터' (www.icms.he.kp) 등은 북한 내부 인트라넷용이다.[5]

3.2 북한의 인터넷 구축 및 이용 현황

북한의 인터넷 기반 웹 사이트들은 체제선전을 위해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한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 또는 관광산업, 초보적인 수준의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 조선중앙통신(kcna.co.jp)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후 관광객과 투자 유치, 북한 상품판매를 위해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com, .net 등의 도메인을 사용한 웹사이트들을 개설해왔다.[6]

한편, 북한 내부에는 국가 범위의 거대한 인트라넷인 '광명' 이 구축돼 있다. '광명'은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개발한 과학기술자료 검색시스템으로 내각의 각 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평양정보센터 등 연구기관, 과학원 발명국, 인민대학습당, 주요 공장, 기업소 등 1,300여 기관 및 기업소 등이 연결되어 있는 인트라넷의 호스트서버(host server)다. 그리고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산하의 '컴퓨터센터' 주도 하에 포털 개념의 '웹사이트 광명'을 개설했다.[7]

한편, 2004년에는 '능라방화벽'으로 불리는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외부 인터넷과의 접속에 대처하

기 위한 인터넷 방화벽(Firewall)에 관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관측되고 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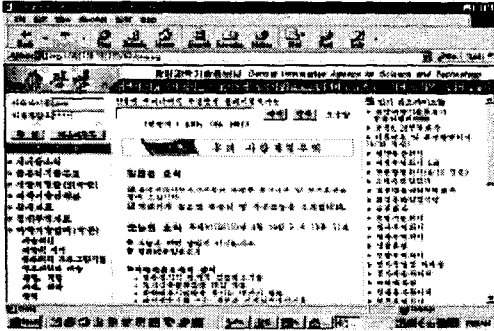


그림2. 북한의 '웹사이트 광명'의 시작페이지

4. 영문 국호 및 통일 국가도메인에 대한 기존 연구

4.1 영문 국호에 대한 논의

모든 국가들은 국호의 핵심단어를 국가 도메인에 사용하므로, 통일 국가도메인 논의 이전에 통일 국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국호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변경하자는 주장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8월에는 "대한민국국호영문표기변경(Corea)추진 결의안"이 여야 의원 23명 명의로 발의되었다가 이듬해 5월, 16대 국회의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9]

이 결의안에서는 'Corea'라는 국호 영문표기가 '고려'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 표기임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한민족의 국호영문표기 변경을 공식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도 이미 국호 영문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Corea'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같은 해 미디어다음,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 미디어들과 인터넷 설문조사기관인 리서치랩에서 실시한 국호 영문표기 변경 관련 설문조사들에서도 찬성의견이 최소 65%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 등에서 재논의될 경우 국호 영문표기 변경 가능성이 충분함을 예측케 한다.[10]

실제로 국호 영문표기 변경 주장은 우리나라 영문국호로 사용되어 왔던 Corea를 일제가 Korea로 바꾸었다는 증거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1882년 서방과의 첫 외교조약인 '조-미 수호통상조약'에서 'Kingdom of Corea'로 표기된 것을 비롯하여 서양에서 발견되어 온 고지도 등에 우리나라의 영문 국호가 'Corea' 등 C로 시작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Korea'는 19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이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11][12]

본 논문에서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의미가 숨어 있던 '국민학교'가 1995년 '초등학교'로 바뀌었듯이 향후 국호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변경하는 것이 충분한 타당성을 지녔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호 영문표기 변경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영문국호 변경 주장들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고찰과 평가는 생략하고, 우리나라의 국호 영문표기 변경의 타당성을 전제로 통일 국가도메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4.2 통일 국가 도메인에 대한 기존 논의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국가 도메인을 준비하자는 주장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13]

2003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국가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14].

- 1)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사용(보유)하고 있는 .kr과 .kp를 혼용하자는 주장
 - 2) .ko(KOrea) : 유력한 통일 도메인 후보로 거론되어 왔으나 2006년 8월 현재까지 북한측과의 도메인 관련 정부 및 민간의 협의는 발견되지 않음.[15]
 - 3) .ka(KoreA)
 - 4)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경제적인 비용도 동시에 고려해 서독의 도메인(.de, .deu)을 활용한 사례가 들어 .kr를 계속 사용하자는 주장
- * 참고로 독일은 국가 도메인 중 알파벳 두 자리수의 코드를 영어식 명칭(Germany)이 아닌 고유명칭(Deutschland)을 따서 정한 경우다. 비슷한 경우로는 'za(남아공)', 'es(스페인)', 'hr(크로아티아)' 등이 있다.

위 주장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국호 영문표기 'Korea'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2003년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지면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진행된 통일 국가 도메인 논의들은 2004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전된 논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16]

5. 통일 후 국가 도메인 연구

5.1 통일 전 국가 도메인의 등록 가능성

1) 불완전 국가의 도메인등록 사례 - 팔레스타인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이 민족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통일도메인 확보를 추진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가 2000년 국가도메인 .ps를 등록한 팔레스타인의 경우다.

1997년 IANA는 .ps 위임을 거절했는데, 당시 ISO 3166-1 에 .ps가 등록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1999년 9월에 ISO 3166-1 목록에 ps가 생

성되고, 10월 IANA에 .ps 위임신청을 하였으며, 2000년 3월 IANA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지정한 '정부컴퓨터센터'에 .ps를 위임한 바 있다.[17]

팔레스타인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도메인 확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이 ccTLD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가상의 국가공동체가 ccTLD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은 아직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남북한이 가상의 통일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ccTLD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가 아니라는 특별지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쟁점과 관련하여, IANA는 국가주권 내지 통치권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며, 또한 ccTLD의 출처인 ISO 3166-1 리스트의 두 자리 코드들 모두가 순전히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에 예측된 지역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IANA의 결정은 "남북한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통일도메인을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판례로 활용가능하다.[18]

3) EU의 사례

유럽연합의 ccTLD 등록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EU는 1999년 6월 사전예약된 .eu의 사용을 ISO 관리기관에 요청하였고, ISO 3166-1 목록에 EU를 추가하기 위해 2000년 ICANN 이사회에서는 .eu 위임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EU 생성관련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2002년 ICANN이 EU에게 등록기관 관리자로 계약을 요구했고, EU는 수용불가 결정을 내려 .eu 도메인은 위임이 연기되었다가 2004년 10월 ICANN의 정식승인을 받았다.[19]

.eu는 EU 역내에 본사, 관리부서 또는 사무소를 가진 기업, EU에 설립된 기관 및 25개 회원국에 거주하는 개인, 역내 설립된 공공 및 민간 단체, 역내 사업자로 등록됐거나 주된 사업지가 역내인 기업에 한해 등록자격이 부여된다.

5.2 통일 국가 도메인명의 전제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ccTLD)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3166에서 정의된 2자리 문자의 국가코드를 의미한다.[20] 대부분의 국가는 이 영어식 국명을 국가도메인에 사용하고 있다. 국가명칭은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등과 같이 외교관계에서는 정식으로 표기하지만, 도메인명에서는 핵심단어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 후 국호로 제안한 'Corea'의 첫 글자 c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두 문자 조합을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5.3 C를 포함하는 국가도메인

1) C로 시작하는 경우

C로 시작하는 문자조합 중 국가도메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문자의 조합은 cb, cd, ce, cj, cp, cq, cs, ct, cw, cv 등이다. 그러나, 이 문자조합들에서는 우리나라를 연상시킬 만한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ce의 경우는 3)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표2. C로 시작하는 국가별 도메인 이름[21]

도메인	국가명	도메인	국가명
ca	Canada	cn	China
cc	Cocos (Keeling) Islands	co	Colombia
cf	Central African Republic	cr	Costa Rica
cg	Congo	cu	Cuba
ch	Switzerland	cv	Cape Verde
ci	Cote d'Ivoire	cx	Christmas Island
ck	Cook Islands	cy	Cyprus
cl	Chile	cz	Czech Republic
cm	Cameroon		

2) c로 끝나는 경우

bc, dc, fc, gc, hc, ic, jc, kc, lc, oc, pc, qc, rc, uc, vc, wc, yc, zc 등이 현재 사용가능한 문자조합들이다. 이 문자조합들에 대해서는 5.4 통일 국가 도메인 제안에서 검토한다.

한편, C가 뒷글자인 국가 도메인은 아래와 같다.

표3. C가 뒷글자인 국가 도메인 현황

ac	Ascension Island
cc	Cocos (Keeling) Islands
ec	Ecuador
mc	Monaco
nc	New Caledonia
sc	sc(Seychelles)
tc	Turks and Caicos Islands

3) corea의 구성문자 조합만을 검토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 국가도메인 Korea에서 .kr이 나왔음을 보듯, 국호 Corea를 가정할 때 cr, co 등이 우선 연상되나, 이들은 기등록 도메인이다. [표2 참조]

c', 'o', 'r', 'e', 'a'의 구성 문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두 문자 조합' 중 기존의 국가도메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면 활용가능한 문자조합은 아래와 같다.

- C로 시작하는 경우 : ce [표2 참조]

- C로 끝나는 경우 : oc [표3 참조]

'Corea'를 구성하는 문자조합만으로 국가도메인을 구상한다면 기존 국가도메인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ce가 유일하다. 하지만, .ce를 국가도메인 명으로 채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ce'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에서 모두 'Corea'의 [k] 발음이 나지 않고, '세' 또는 '체' 등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oc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영문 국호가 연상될 만한 문자조합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4) 남북한의 현 영문국호의 약자를 대상으로 검토

현 남북한의 공식 영문국호의 약자들을 포함한 문자조합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dc(Democratic republic of Corea)와 .pc(People's republic of Corea), .rc('Republic of Corea'를 가정) 등도 최상위 도메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도메인에 국호의 핵심단어 외에 국체(國體)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고유성이 상실된다. 또한 통일 국가의 영문 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 국명에 근거한 도메인 명을 생각할 수 없음을 명백하다. 따라서 이 경우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4 통일 국가 도메인 제안

본 논문에서는 통일국가 도메인 명으로 .uc를 제안한다. "연합한, 모여서 하나가 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united'와 'Corea'의 조합, 즉, 통일 한국(United Corea)을 의미한다. 통일 후 정식 국호 영문표기에 상관없이 통일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단어를 직접 국가 도메인 이름에 사용하고 국호의 핵심단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참고로 u로 시작하는 국가 도메인 중 united를 국가 도메인 구성단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표3]에서와 같이 영국(.uk)과 미국(.us), 그리고 군소 외곽 제도 연합국(.um)[22] 등이다.

표4. U로 시작되는 국가별 도메인 이름

ua	Ukraine
ug	Uganda
uk	United Kingdom
um	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
us	United States
uy	Uruguay
uz	Uzbekistan

6. 결론 및 향후 과제

통일 국가 도메인을 논의하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의 활발한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현재 국가도메인(.kp)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도메인의 필요성을 남북한 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측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정부 차원에서도 ISO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우선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공인을

얻기 위해 ICANN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 [1] 이판정, "인터넷주소의 발전방향과 제3세대 인터넷 주소", 넷피아, 2005
- [2] 인터넷 사이트 <http://www.iana.org/cctld/cctld-whois.htm>, 2006.8.18 검색.
- [3] "2000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2000.
- [4] "북한의 국가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월간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킹센터, 2003.11
- [5] "北 'kp' 도메인 속속 개설", 전자신문, 2003.7.29
- [6] "주간 북한동향" 제686호, 통일부, 2004.3.18.
- [7] 고경민, "북한의 이원적 전자정부 전략",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2003.11
- [8]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통일소식' (2004.5.10)
- [9] 김성호 의원 등 23인, "대한민국 국호 영문표기 변경 촉구결의안", 국회, 2003.8
- [10] 한태욱, "영문국호 'Corea' 변경여론 우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_ice_id=047&article_id=0000034374§ion_id=111&menu_id=111, 오마이뉴스 인터넷 기사, 2003.8.5.
- [11] 정용욱 외, "외교문서를 통해 본 korea와 corea의 차이" 등, 국호 영문표기문제 남북학술토론회, 2003.9.
- [12] 오정운, "COREA운동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 "통일국호 COREA 되찾기 연대회의" 토론회 자료집, 2004.5.29
- [13] "남북한 통일 도메인의 확보 및 운영 방안", 인터넷주소위원회 워크숍,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 2000.
- [14] 정광화, "통일 한국 국가코드", 한반도 인터넷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2003.8.
- [15] 박정원, "북한의 IT법제와 남북 IT 교류협력의 제도화방안 연구", p 154, 한국법제연구원, 2004.
- [16] 인터넷 사이트 www.naver.com 및 www.google.co.kr, '통일' & '도메인' 키워드 2006.8.14 검색결과
- [17] <http://www.iana.org/reports/ps-report-22mar00.htm>, 2006.8.14 검색.
- [18] 윤상길 외, "남북한 통일 도메인,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거버넌스연구소 [동향과 분석] 창간준비 제2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0.
- [19] IANA 인터넷 홈페이지(<http://whois.iana.org>), 2006.8.18 검색
- [20] 인터넷 사이트 <http://www.iana.org/cctld/cctld-whois.htm>, 2006.8.16 검색.
- [21] 인터넷 사이트 <http://www.iana.org/reports/ps-report-22mar00.htm>, 2006.8.14 검색.
- [22] 인터넷 사이트 http://tour.paran.com/trip_world/trip_world_list.asp?page=4&area=P, 2006.8.13검색.